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 기 범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점을 이용한 기억 표현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인 예 원

점을 이용한 기억 표현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권기범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인 예 원

인 준 서

인예원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16년에서 2017년 작품을 토대로 2017년 석사학위 청구전 전시에서 발표된 작품을 중심으로 일상의 기억과 보이지 않는 것의 기억을 점을 통해 회화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에 대한 연구이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가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일상을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기록을 한다. 기억은 사진이나 기록을 통해서도 떠올릴 수 있지만 본인은 보이지 않는 기억, 즉 냄새나 분위기, 감정 등을 이미지로 점을 통해 묘사함으로써 사진이나 글과는 다른 방식의 일상 기억을 기록하는 작업을 한다. 눈에 보이는 기억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히고 왜곡된다. 보이지 않는 기억은 보이는 기억보다 빠른 속도로 잊히고 변화한다. 하지만 잊히더라도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기억은 한 자리에 머물러있지 않고 변화하고 움직인다. 이러한 기억의 형태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면서 연성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이러한 형태를 연기나 물에 퍼지는 형태와 동일성을 찾아 묘사하였다. 기억은 아주 작고 다양한 기억들이 모여 하나의 기억을 이룬다. 친구와의 만남을 떠올린다면 크기는 언제, 어디서 정도가 있지만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친구는 어떻게 느꼈는지, 그날 친구의 기분은 어떠했는지 등 일상의 기억을 세분화해보면 아주 작고 많은 기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그러한 작은 기억들을 점으로 묘사해 작업을 진행하며 눈으로 보이는 기억이 아닌 '기억' 그 자체의 형태에 대해 연구하고 묘사의 방향을 모색한다.

주요어 : 기억, 점, 보이지 않는 것, 가변성, 연성의 형태.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기억의 표현	3
1) 기억과 이미지	3
2) 이미지를 기억하는 방식	5
2. 기억을 통한 일상의 재현	7
1)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억	7
2) 점을 통한 기억의 표현	9
3. 작품 설명	13
III. 결론	29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무제, 29.7x21.0cm, 색지에 펜, 2010	13
【작품 2】 마음의 풍경 연작, 00.0x00.0cm, 광목에 혼합재료, 2013	14
【작품 3】 漠_막 I, 90.8x60.5cm, 장지에 혼합재료, 2015	15
【작품 4】 漠_막 II, 90.8x60.5cm, 장지에 혼합재료, 2015	15
【작품 5】 순간, 26.0x17.8cm, 장지에 혼합재료, 2016	16
【작품 6】 여러 기억, 24.2x33.4cm, 장지에 혼합재료, 2016	17
【작품 7】 기억의 형태 I, 40.0x40.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18
【작품 8】 기억의 형태 II, 40.0x40.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18
【작품 9】 날아가다, 20.0x20.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19
【작품 10】 기억의 형태 I, 17.8x12.7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20
【작품 11】 기억의 형태 II, 17.8x12.7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20
【작품 12】 그날들, 53.0x72.5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21
【작품 13】 이상한 토요일, 90.0x160.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22
【작품 14】 지센 날 I, 145.0x57.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23
【작품 15】 지센 날 II, 145.0x57.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23
【작품 16】 비 내린 금요일, 80.3x130.2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24
【작품 17】 공허한 새벽, 80.3x130.2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25
【작품 18】 바쁜 저녁, 90.0x160.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26
【작품 19】 풀리던 날, 36.0x96.3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27
【작품 20】 생각이 많은 날, 53.0x72.5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28

I. 서론

일상에서의 기억은 사진과 같이 완벽한 장면을 시각적으로만 기억하기보다는 일상의 특별함을 자각하는 순간의 분위기, 냄새, 날씨, 상황 등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은 것들을 함께 기억하게 된다.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은 이러한 기억은 영원하기 힘들다. 변형되고, 잊히고, 다시금 기억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상을 사진으로 남기고, 추억의 물건을 남기고, 글을 쓰고, 기록한다. 이러한 매개체가 사람들은 일상의 기억을 인상에 남은 순간으로 남기고 이는 다시 기억으로 떠올릴 수 있다. 매개체가 없어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거나 떠올릴 때 기억은 더욱 선명해진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잊히는 것 같지만 잊힌 기억은 완전히 상실된 것이 아닌 본인 의식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억은 하나의 순간을 완벽한 형태로 기억하는 것이 아닌 기억하는 순간의 무수히 많은 상황과 환경, 감정, 색깔, 향기, 맛, 온도, 시간 등 아주 작고 사소한 기억들이 모여 하나의 기억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다.

어느 날의 즐거웠던 하루를 기억한다면 그날의 날씨, 함께 한 사람,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더 자세히 기억한다면 그날의 나는 어떤 옷을 입었는지, 상대방의 옷의 색깔은 무엇인지 등 아주 많은 기억을 처음에는 생생하게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와 같은 가장 강한 인상을 주었던 기억만 남게 된다.

본 논문은 이렇게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기억]을 연기와 같은 기체의 형태나, 물에 떨어진 잉크와 같은 액체의 연성 형태를 점을 통해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연구한다. 본 연구의 진행은 작품이 나오게 된 동기와 배경과 많

은 연구자의 검증을 거친 이론, 일상의 기억을 점으로 표현한 배경과 이유, 작품의 설명 순으로 진행된다.

본문 제1장에서는 기억과 이미지에 대한 연구과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기억에 관해 서술한다. 제2장에서는 기억을 통한 일상의 재현으로 보이지 않은 것들의 기억들과 점을 통한 기억의 표현, 작품의 물성에 대하여 연구한다. 제3장에서는 작업의 조형적 표현방식과 작가 노트를 기반으로 작업 속 일상의 기억과 관련된 에피소드로 진행된다.

II. 본 론

1. 기억의 표현

1) 기억과 이미지

작업을 진행하며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은 기억의 이미지이다.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기억은 잊힐 때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닌 구성요소들이 흩어져 있다가 어떠한 계기 또는 매개체가 다시 모여 구성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성요소들은 시각적 이미지, 청각, 촉각, 분위기 등 직접적인 감각을 포함하여 개인이 느낀 감정이나 분위기를 포함하는 다양한 기억을 말한다. 개인이 느낀 감각과 감정을 포함한 다양한 기억들은 왜곡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 또한 개인의 느낌이 반영된 기억이다.

몹시 추운 겨울, 처음 가는 곳의 밤길을 걸을 때 멀다고 느끼며 걷지만, 다음날 햇살 아래서 본 지나온 길은 생각보다 짧은 길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는 전날 밤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 아닌 그 순간의 감정이 기억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시절 크고 넓었던 교실과 운동장이 성인이 되어 가보면 ‘이곳이 이렇게 작았나?’하고 되새기는 것 또한 그러하다.

이러한 기억을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 떠올린 것은 작은 알갱이들이 뭉치고 움직이는 형태였다. 작은 점들이 모여 어떠한 형태를 만들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쉬운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연성의 형태들을 포착해 표현하게 되었다.

작은 기억들이 모두 모이지 못하면 처음의 기억과 완전히 똑같을 수 없다. 그렇게 구성요소들이 조금씩 빠져나가 ‘희미한 기억’이 되었다가 차츰 잊히는데, 이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이 있어야 할 기억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

했을 뿐 근본적인 구성요소는 남는다.

과거는 현실적으로 무용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그래서 망각되고 억압된 것일 뿐이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는 현재 의식의 배후에, 무의식 속에, 잠재적인 상태로 항상 존재한다. 지금 현재 내가 자각하고 있는 내 방의 사물들 바깥에, 지금 현재 내 의식 속에 이미지 형태로 들어오지 않는 옆방, 뒷집, 다른 건물, 다른 도시가 존재하듯이, 지금 현재 내가 기억하지 않는, 내 의식에 이미지 형태로 떠오르지 않는 과거들 또한 그대로 과거 속에 존재한다. 지각되지 않은 사물들만큼이나 기억되지 않은 과거들도 현재의 의식 바깥에, 무의식적으로, 있는 것이다.¹⁾

기억했다 잊어도 그 기억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각하지 못했다는 것이 존재의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인지한 기억은 꼭 객관적일 필요가 없다. 기억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도 인지하지 못하면 기억 속에서 배제될 수 있으나 그 사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 무의식 속에서는 존재할 수 있다.

1) 김재희, 『물질과 기억 반복과 차이의 운동』, (주)살림출판사, 2008, pp122-123.

2) 이미지를 기억하는 방식

“기억2記憶(명사)의 첫 번째 사전적 정의가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 냄.”²⁾ 이다. 도로 생각해 내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다양한 감각들과 상황 속 이미지를 떠올리는가가 기억의 중요한 요소인데 이때 매개체가 있으면 기억은 더욱 선명해진다. 우리가 잊고 있던 상황도 사진, 추억이 담겨있는 물건, 같은 경험을 한 사람과의 대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더욱 자세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얼마 전 도서관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떠올리기 위해 잃어버린 날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옷을 벗었는지, 옷을 어디다 걸어놨는지, 그다음 카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언제 다시 카드를 보았는지까지 떠올리고 나서야 겨우 잃어버린 카드를 찾을 수 있었다. 누구나 한 번쯤 지갑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보통 그런 경우 본인이 그날 하루 움직인 루트를 되짚어가며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따라 하고 나서야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떠올리고는 한다.

Victor Hugo³⁾가 “냄새만큼 회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고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기’위하여 어느 때든 환경적인 연상을 이용할 것이다. 전형적인 예는 이를 닦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전화해야 할 친구를 생각하는 경우이다. 몇 분 후에, 그가 전화기 앞에 왔을 때, 그는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를 까맣게 잊어버린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내려 하지만 , 회상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욕실로 다시 가지만 여전히 단서가 잡히

2) 표준국어대사전, 2018.5.11.,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3) 빅토르 위고[Victor-Marie Hugo,1802.2.26.~1885.5.22] 프랑스의 낭만파 시인, 소설가 겸 극작가. 낭만주의자들이 ‘세나클(클럽)’을 이루었다. 소설에는 불후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는 《노트르담 드 파리》가 있다. 그가 죽자 국민적인 대시인으로 추앙되어 국장으로 장례가 치러지고 판테온에 묻혔다. 두산백과, 2018.12.14,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85388#hedaer>

지 않는다. 그는 다시 세면기 옆에 서지만 여전히 생각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틈을 타서, 그는 이를 닦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그때 갑자기 그 기억이 되살아난다.⁴⁾

그래서 보이지 않는 다른 많은 기억을 작업에 담기 위하여 작업만큼 중요한 것은 작업의 제목이다. 본인의 작업은 한 화면에 수많은 작은 점을 그리며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작업에 있어 끊임없이 기억을 되새긴다. 그 때문에 본인은 작업에 담긴 내용을 더욱 상세히 기억한다. 하지만 작업의 이미지가 연성의 이미지를 토대로 표현되는 것이 반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제목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담아낸다. 제목은 연상하기 가장 좋은 단서이다. 제목과 그림이 만나면 당시의 기억이 쉽게 회상되기 때문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기억을 공간으로 표현하면, 기억은 마치 우주와 같이 넓고 심해와 같이 깊고 어두워서 특정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탐색을 해야 한다. 연상은 기억의 어떤 부분을 찾아야 할지 알려주는지도 같은 역할을 한다. 연상이 강한 키워드(keyword)⁵⁾일수록 더 자세하고 정확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돕는다.

4) Peter Russel, 김유미 역, 『인간의 두뇌-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 마법의 베틀인』, 교육과학사, 1998, p141.

5) 기록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제목이나 내용에서 추출한 단어나 구절로서 기록을 검색할 때 접근점으로 쓰인다. 키워드는 기록의 제목이나 초록, 전문(full text)에서 그대로 추출하거나, 해당 개념에 상응하는 단어를 통제 어휘집에서 추출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는 보통 디스크립터(descriptors)라고 한다. 키워드[keyword]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용어사전』, 역사비평사, 2008.3.1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97232&cid=50293&categoryId=50293>>.

2. 기억을 통한 일상의 재현

1)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억

우리는 기억을 되새길 때 시각적인 것도 기억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하기도 한다. 분위기, 날씨, 냄새, 감정, 상황 등 많은 것이 있다. 그 예로 대화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도 대화 당시 분위기가 즐거웠는지, 기뻐했는지, 슬펐는지,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을 한다. 그날 입은 옷의 색깔은 기억하지 못해도 그날 햇살이 따듯했는지, 구름이 끼었는지를 기억한다. 매일 지나가는 일상에서 사진에는 찍히지 않는 기억들은 쉽게 잊히지만 본 연구자는 작업으로 하여금 요일과 날짜는 기억하지 못해도 그날의 기분과 상황을 떠올린다. 평범한 일상이 작업으로 하여금 특별한 기억으로 전환된다.

일상을 지각하게 되는 순간은 매우 짧고 평범한 일이다. 지나치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나치기 쉽지만 지각한 순간이 기억으로 전환하면 지나친 일상보다 기억에 깊이 남는다. 본 연구자는 이처럼 지각하게 되는 순간을 지나치지 않고 작업을 통하여 특별한 기억으로 남긴다. 그 과정에서도 처음 지각하는 순간보다 많은 기억을 잃어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각하게 된 계기가 되는 기억은 강하게 남는다.

기억이 조직화되는 다른 중요한 방법은 의미이다. 의미는 모든 사고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고, 경험에 질서를 부여해준다. 사실, 지각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환경으로부터 의미를 추출하는 과정이다. 자료를 가볍게 처리할 뿐이라면, 의미가 거의 도출되지 않고 기억이 잘 안 된다. 처리가 깊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아이디어와 더 의미 있는 연상이 생기고 기억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⁶⁾

6) Peter Russel, 김유미 역, 『인간의 두뇌-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 마법의 베틀인』, 교육과학사, 1998, p147

깊게 처리하려면, 그 자료에 의식적으로 몰두해야 한다. 정신이 주의집중되지 않으면, 정보는 “한쪽 귀로 들어와 한쪽 귀로 나가버릴” 것이다. 정보가 남긴 자취가 너무 흐려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회상할 수 없다. 당신이 어떤 것에 더 의식적으로 주의집중 할수록, 처리는 더 깊어질 것이다. 처리가 더 깊이 이루어질수록, 그 자료는 더 의미 있게 될 것이다. 그 자료가 더 의미 있게 되면, 기억을 더 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억을 더 잘하면, 미래에 새로운 자료와 의미 있게 관련시킬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⁷⁾

본 연구자는 작업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다양한 기억들을 놓쳐버리기 전에 반복적으로 회상하고 의식하여 기억에 더 남을 수 있도록 한다.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끊임없이 순간의 감정이나 분위기 등을 되새겨 기억에 깊이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다시 떠올렸을 때 작업 속의 일상은 더 생생하게 기억된다.

재인용 F.I.M.Craik and R.S.Lockhart, "Levels of Processing: A Framework for Memory Research,"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04:268-94
7) 위의 책, p147

2) 점을 통한 기억의 표현

본 연구자의 작업은 점묘를 통해 기억을 표현한다.

동서양의 미술 회화에서 여러 가지 점묘의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표현 방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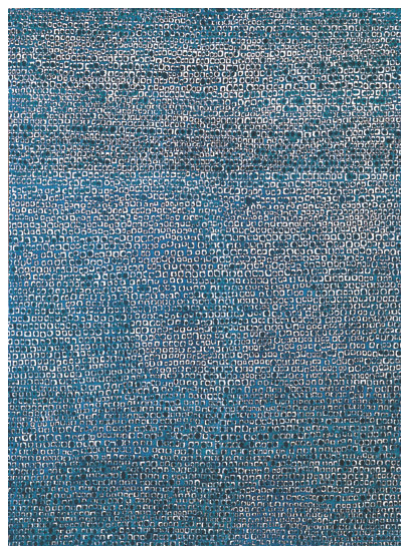
점묘법은 점 또는 점과 유사한 세밀한 터치로 묘사하는 회화 기법의 용어이다. 동양화에서 자연을 인상적으로 해석하는 미법산수의 미점, 인상주의의 경우에는 프리즘에 의해 분해된 색이 병치에서 색점 배치의 묘법 등이 대표적인 점묘의 예이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림물감을 팔레트 위에서 섞는 것을 지양하고 순수한 빛을 표현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화면은 미세한 점으로 분할되고 색채도 순수한 색으로 분할되었다. 이 수법은 일찍이 콘스터블John Constable(1776~1837)의 풍경화에서도 부분적으로 쓰였으며, 들라크루아Eugene Delacroix(1798~1863)도 의식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 그러나 점묘법을 제작의 기본원리로 삼은 것은 모네Claude Monet(1840~1926)와 피사로Camille Pissaro 등 인상주의 화가들이었다. 특히 신인상주의 화가인 쇠라는 이것을 이론화 하였으며, 그 이론은 시냐Paul Signac(1863~1891)의 《들라쿠루아로부터 신인상주의까지》(1899)에 의해 일반적으로 보급되었다. 회화의 구성 요소로서 가장 중요시되어온 선을 쓰지 않고 점으로써 형상의 실체를 표현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비약적인 것이었다. 원색의 미세한 점들로 그려진 신인상주의 작품은 점묘주의 혹은 분할주의라고 불렸다.⁸⁾

이전의 점의 사용은 새로운 표현방식이나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하나의 기법이었다. 본인의 작업은 [점] 자체가 그림의 본질로 점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과 동시에 점묘 자체가 본인의 작업에서도 효과를 극대화한 기법

8) 월간미술 역, 『세계미술 용어사전』, (주)월간미술, 2015, p401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점을 통해 기억을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의 점은 기억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환기작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점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인연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
수많은 ‘인(因)’과 ‘연(緣)’들이 만나 생성된 저
점 같은 순간들이 잇닿고 서로 기대며 또 새
로운 만남을 필경 낳을 것입니다.⁹⁾



【도 1】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김환기, 236cm×172cm, 캔버스에 유채, 1970

내 작품은 공간의 세계란다. 서울을 생각하며
오만가지 생각하며 찍어 가는 점. 어쩌면 내
맘속을 잘 말해주는 것일까. 그렇다. 내 점의
세계…….

내가 찍은 점(點"). 저 총총히 빛나는 별만큼
이나 했을까. 눈을 감으면 환히 보이는 무지개보다 더 환해지는 우리 강산(江
山)…….¹⁰⁾

수화 김환기의 점도 기법적인 측면으로 형태의 묘사를 위해 연구된 점이라
기보다는 그 각각의 점이 순간이고, 풍경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억인 것
이다. 김환기 그림 속 수많은 점들이 하나하나 의미가 담긴 것이다. 이 점들이
모여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 본 연구자의 작업과도 맞닿는 부분이 있
다.

9) 김환기 작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의 작품소개

10) 김환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재)환기재단, 2005, pp322-323.

점은 하나의 기억을 구성하는 수많은 어떠한 작은 것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기억하게 되면 짧은 순간이라도 많은 것들을 기억하게 된다. 어떤 순간의 기억이든 하나의 물체, 풍경에는 수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 그 수많은 것(또는 기억)이 하나의 무언가(불특정한 물체, 풍경)를 구성하는 것이다. 단 하나의 점으로는 그림을 완성할 수 없다.

기억도 마찬가지다. 노란색을 떠올렸다고 해서 어디에, 어떤 물체가, 어떤 노란색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노란색, 둥근 모양, 시큼한 냄새, 신맛, 만졌을 때의 울퉁불퉁함 등이 모여야 비로소 레몬에 대해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감각 영역의 지능적 행동은 그 매체의 자료가 얼마나 분명하고 구체적인가에 좌우된다. 그 자료가 풍부하고 다양한 성질을 제공해야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든 감각들이 그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성질들이 분명한 형체(shape)의 체계로 조직되지 않으면 이들은 지능에 별다른 힘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면 후각과 미각의 감각들은 비록 그 낱앙스는 풍부하나, 인간 마음의 경우에는 그러한 풍부함이 발달되지 않은 질서를 유발한다. 따라서 우리가 냄새와 맛에 도취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생각하기가 힘들다. 시각과 청각에서 형체, 색채, 운동, 소리 등은 시공간에서 분명하고 고도로 복잡한 체제화를 받는다. 이 두 감각은 지능의 연마에 한층 더 뛰어난 매체들이다.¹¹⁾

본 작업의 점묘에서 사용되는 점은 반짝이는 펄을 통해 표현한다. 이는 기억 그 자체가 아름답지는 못할지라도 작은 기억, 감정들은 각각 반짝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짝이는 소재의 펄로 점을 찍거나, 그리면 그 점 안에서

11) 루돌프 아르헨하임, 김정오 옮김, 『시각적 사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p42

도 더 작은 반짝임이 드러난다. 작은 점도 더 작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

배경의 점(얼룩)색의 의미는 순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색이지만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먹에 잠겨있는 듯 표현하였다. 언뜻 비어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많은 얼룩들이 남겨져 있다. 쉽게 자각하지 못하지만 가라앉아있는 상태, 또는 자각을 하지 못하는 평온의 상태를 표현하고자 했다. 동시에 떠오르는 기억인 반짝이는 점을 부각해준다. 먹 또는 튀는 색이 부분적으로 보이는 것은 무의식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사진에는 찍히지 않는 기억의 형태. 즉, 감정의 형태, 공기 흐름의 변화, 피부로 느끼는 온도 등 사진에 찍히지 않는 기억들은 유독 연성적이고 가변적이다. 이러한 형상을 연기나 물에 퍼지는 잉크와 같이 유동적이고 연성적인 형상이라고 생각하여 표현하였다.

연기가 처음 발생한 순간에는 우리 눈에도 연기의 형상이 명확히 보이지만 연기가 퍼져나가며 연기의 형상은 점점 흐려진다. 연기의 형상은 뭉쳐있기도, 풀어지기도, 흘러가기도, 멈춰있기도, 흩어지기도, 꼬이기도 한다. 물에 퍼지는 잉크나 먹의 형상은 기억과 더 유사성을 보인다. 먹이 처음 물속으로 퍼져나갈 때 가장 진하고 강하게 보이지만 순식간에 다른 형태로 변화하며 점점 열어지고 투명했던 물도 아주 연하지만 먹의 색으로 변한다. 먹의 형태가 사라졌어도 먹은 처음과 같은 양의 먹이 물에 그대로 존재함을 증명한다.

이러한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형태의 순간을 포착하여 필요한 부분의 강조, 생략 등을 통해 조형적인 형상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과정 또한 기억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기억도 기억하는 순간에는 많은 것을 기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을 잊게 되고, 인상에 남는 부분만 더 명확하게 기억을 한다. 이는 본인이 생각하는 기억과 형태적 동일성을 갖는다.

3. 작품설명



【작품 1】 무제, 29.7x21.0cm, 색지에 펜, 2010

처음 점묘의 시작은 점묘주의, 즉 균일한 필촉으로 작은 색점을 찍는 표현 기법¹²⁾으로 시작되었다. 본 무제 작업은 은하수를 연상하며 점을 찍었다. 이 작업에서의 은하수가 꼭 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작은 점들. 그 자체와 의식의 흐름에 따른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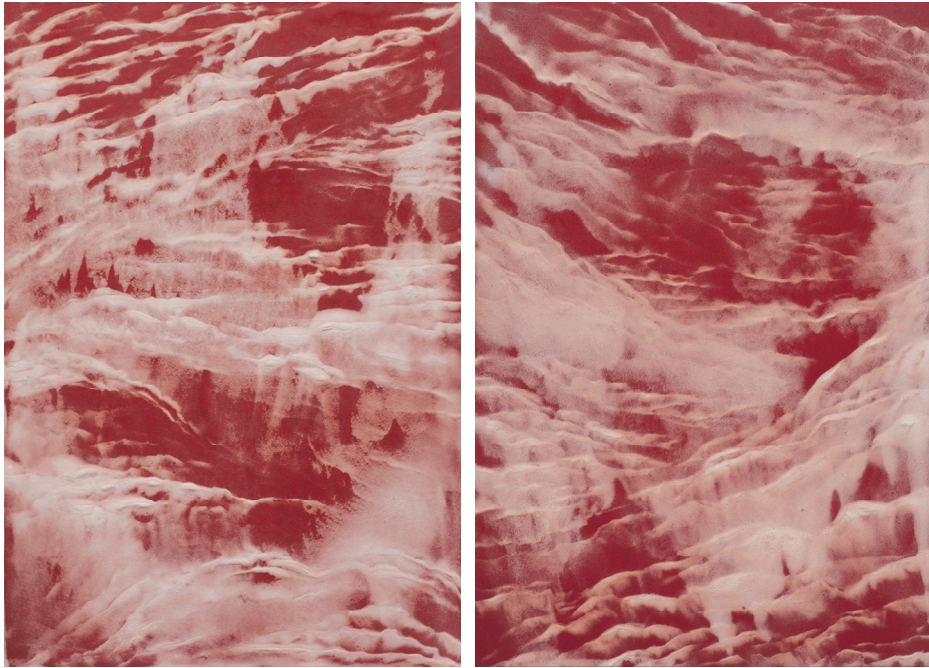
점은 또렷하고 균일한 크기이고, 그림의 강약은 순수하게 점이 모여 있는 것과 퍼져있는 것만으로 표현하였다.

12) 월간미술 역, 『세계미술 용어사전』, (주)월간미술, 2015, p401



【작품 2】 마음의 풍경 연작, 150.0x150.0cm, 광목에 혼합재료,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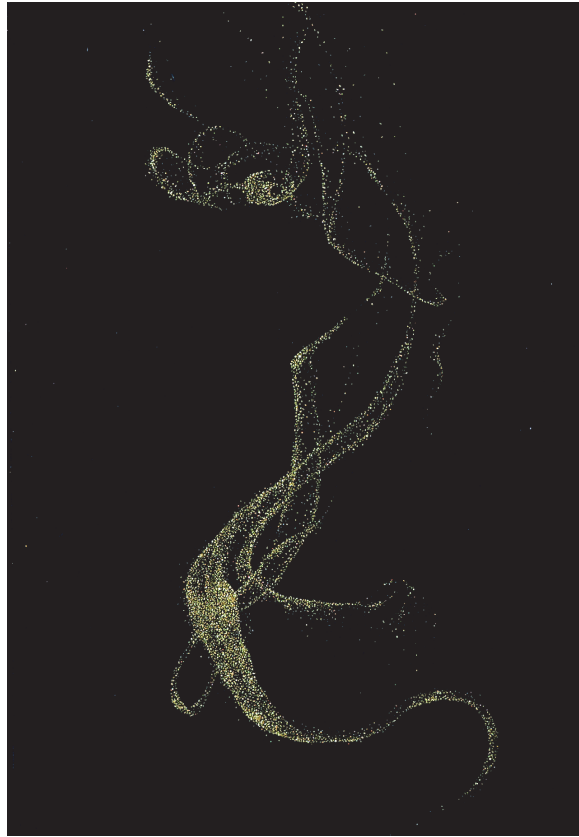
겹겹이 쌓인 레이스 너머 보이는 반짝이는 비즈들은 사람의 감정 깊은 곳에는 반짝이는 감정들이 알알이 존재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광목에 염색하고 비즈를 붙인 다음 레이스를 겹겹이 꿰매었다. 비즈는 여러 장의 레이스에 가려지기도 하고, 언뜻 보이기도 하고, 모두 드러나 있기도 하다. 중요한 점은 가려진 곳에도 비즈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작품 3】 漠_막 I , 90.8×60.5cm, 장지에 혼합재료, 2015

【작품 4】 漠_막 II, 90.8×60.5cm, 장지에 혼합재료,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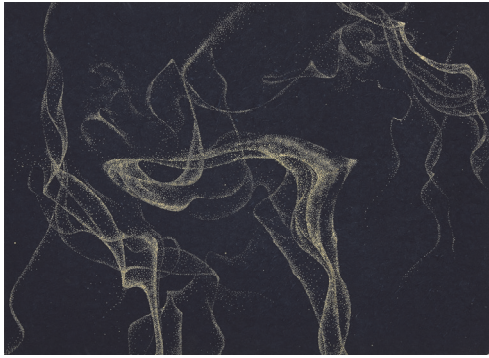
漠_막 연작은 이상적인 죽음을 사막을 통해 표현하였다.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죽음은 고요하고 적막한 사막에서 조용한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죽음이라는 것이 생물적인 죽음과 동시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조용히 잊히는 철학적인 측면의 죽음을 이미지 하였다. 알알이 작은 모래 알갱이가 흩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흩어져 결국에는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작품 5】 순간, 26.0x17.8cm, 장지에 혼합재료, 2016

연기의 형상화를 점묘로 표현한 첫 번째 작업. 금분을 이용하여 반짝이는 점으로 연기를 형상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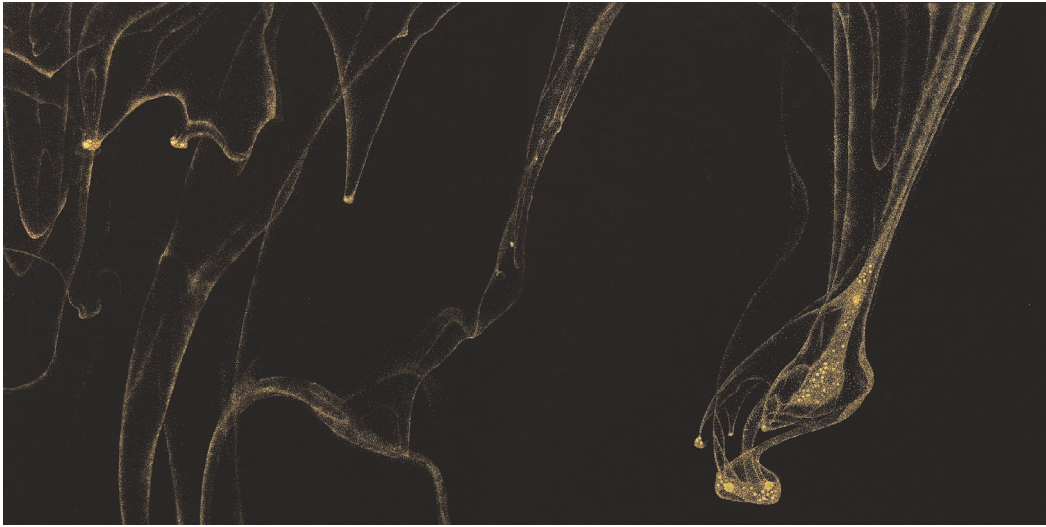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 기억과 감정을 연기로 표현하였다. 존재하는가 하면 흩어진다. 그 흩어진 잔재는 남아있기도 사라지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가와 존재하는가는 다른 문제이다. 상황에 따라 보이기도 감춰지기도 한다. 눈에 보이지 않아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인다고 해서 잡히는 것도 아니다.



【작품 6】 여러 기억, 24.2x33.4cm, 장지에 혼합재료, 2016

【작품 6-1】 detail

점묘로 연기를 형상화하면서 가장 중요시한 부분은 확장성이었다. 연기는 날아 가고 흩어진다. 퍼지는 이미지를 프레임에서 확장하기 위해 화면의 옆면까지 디테일을 살려 화면을 확장했다.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연결하였다.



【작품 7】 기억의 형태 I , 40.0x40.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작품 8】 기억의 형태 II, 40.0x40.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기억의 형태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며 진행한 작업이다. 연기가 아닌 물에 떡이 떨어지는 형상을 포착하여 뭉치고, 흩어지고, 퍼지고, 가라앉고, 흘러가는 이미지를 본인이 생각하는 기억의 이미지에 맞도록 편집과 왜곡을 거쳐 이미지를 만들어 내었다. 떡을 이용한 깊은 어두운 색은 금분의 선명한 대비와 동시에 심연의 무의식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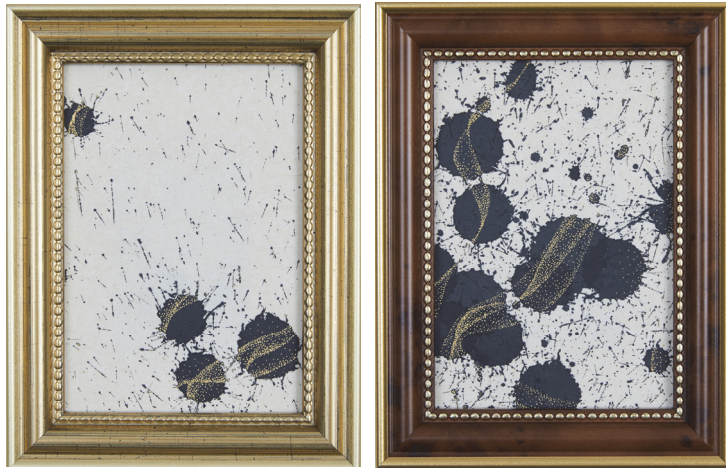


【작품 9】 날아가다, 20.0x20.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작품 9-1】 detail

일상의 기억은 가볍고 순간적이어서 쉽게 잊힌다. 가볍고 사소한 기억이 흔적을 남기고 나르는 기억의 형태를 그렸다. 기억은 유동적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들을 캡처하듯 일시정지 시켜 잡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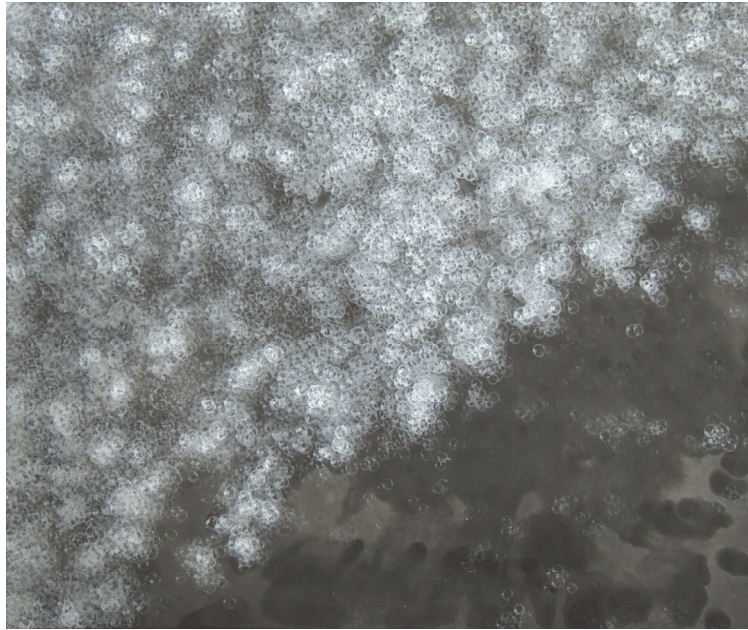
어쩔 때는 뭉쳐있기도, 그것이 한순간 풀어지기도, 흘러가기도, 멈춰있기도, 날리기도, 꼬이기도 한다.



【작품 10】 기억의 형태 I , 17.8x12.7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작품 11】 기억의 형태 II , 17.8x12.7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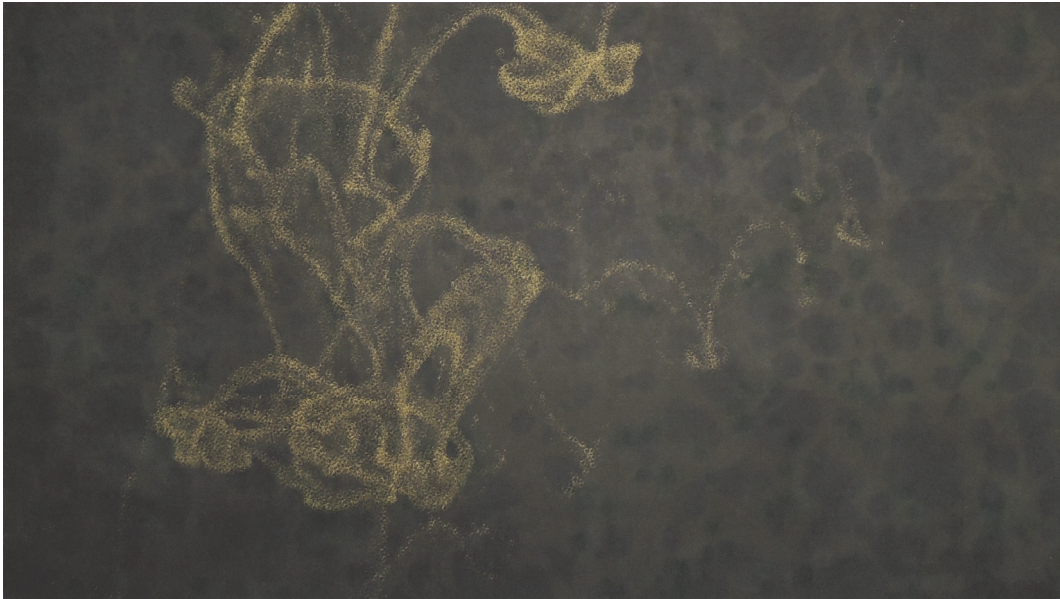
상황에 따라 기억은 떠오르기도 하고 무의식 속에 잠기기도 한다. 기억은 마치 자석처럼 작은 기억들끼리 하나를 떠올리면 주변의 다른 기억들도 함께 떠오르고는 한다. 하지만 상황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만 떠오르기도 하는데 다른 부분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기억을 떠올리는 어떤 환경이 일부의 기억만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작품 12】 그날들, 53.0x72.5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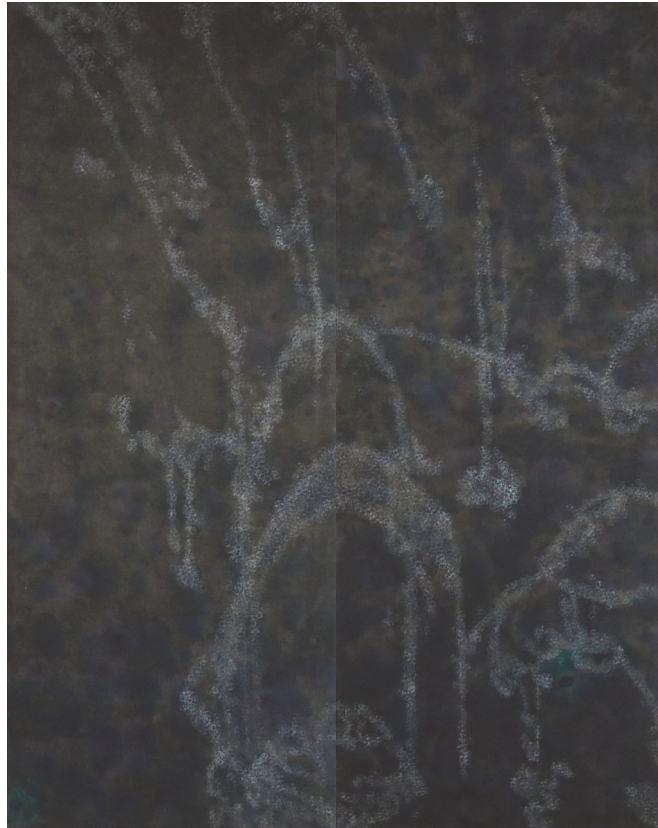
하루의 기억과 감정이 아닌 내 안에 차곡차곡 모이고 쌓인 기억과 감정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억을 남기고, 감정들을 남기고 있는가에 대해 중첩되고 또 중첩되고 그래서 지나간 기억은 새로운 기억에 가려지고 겹쳐지지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두운 배경에 점과 같은 얼룩을 남긴다. 그 얼룩은 커다란 점과 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색채가 있을 수도 있고, 진할 수도 있고, 연할 수도 있다. 점의 크기도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 이전 작업보다 배경에 깊이를 주고 기억이라는 세계관을 전체적으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어두운 배경은 무한히 넓은 무의식의 세계와 침전되어있는 기억들이다. 점도 이전 작업보다 크기를 키워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중첩과 강조를 통해 다양한 표현을 보여준다.



【작품 13】 이상한 토요일, 90.0x160.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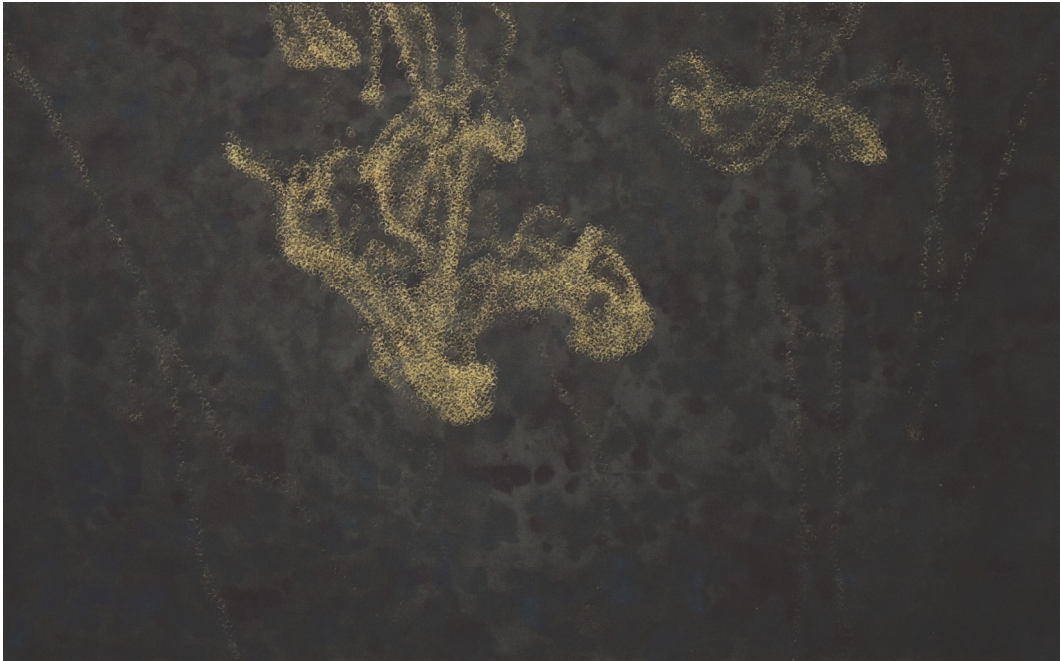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던 비 내리던 토요일. 투명한 비닐우산을 들고 집 앞에 커피를 사러 가던 길, 기분이 이상했다. 그 어떤 특별함도 없던 일상이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끼자 그날의 날짜, 계절 등 모든 기억 대부분을 잊어버렸지만, 그날의 분위기와 미묘한 기분은 기억에 남았다. 위화감은 강렬하고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가득 담긴 물에 아주 연한 잉크가 퍼져나가듯 연약한 움직임이지만 선명하게 느낀 감정이었다.



【작품 14】 지센 날 I , 145.0x57.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작품 15】 지센 날 II , 145.0x57.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작업실에서 밤을 새워서 작업을 하던 어느 날 새벽, 유독 고요하다고 느껴진 새벽이었다. 아스라이 동이 터오는데 작고 많은 생각들이 툭. 툭. 떨어져 내렸다. 하나의 생각은 두 개의 생각으로 갈라지고 그 생각들은 또 다른 생각으로 퍼져나갔다. 작은 생각들이 꼬리의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날, 날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날을 지새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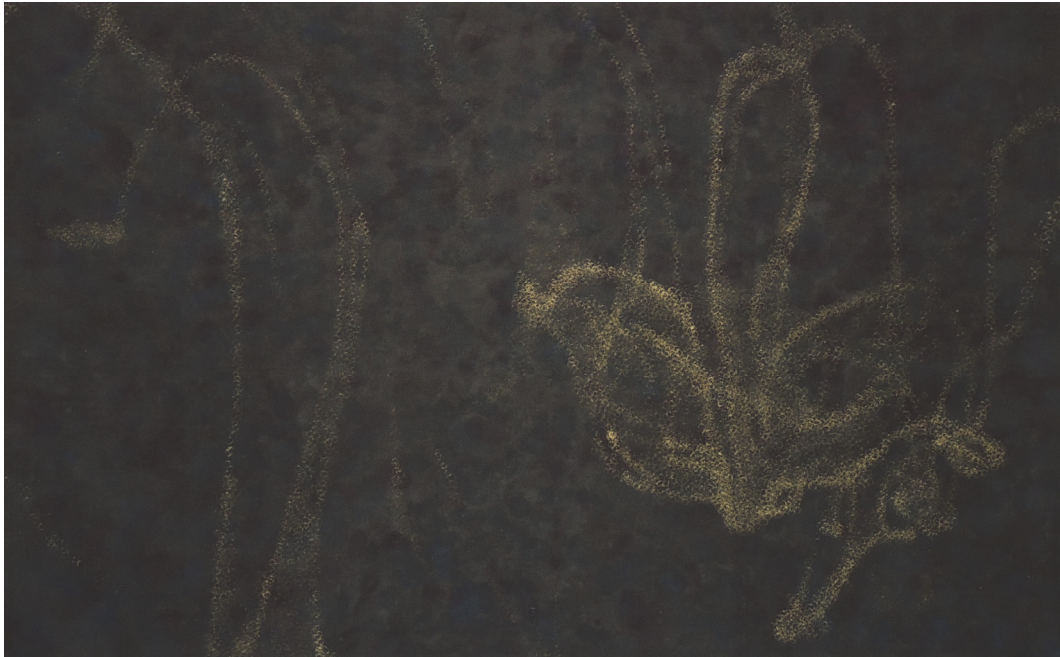


【작품 16】 비 내린 금요일, 80.3x130.2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더운 여름, 낮이 밤인 것처럼 어둑어둑하게 비가 한참을 내린 금요일 저녁. 무덥던 온도가 내려가고 축축하지만 묘하게 개운해졌을 때. 가라앉아 잔잔했던 생각과 감정이 훅하고 몰아닥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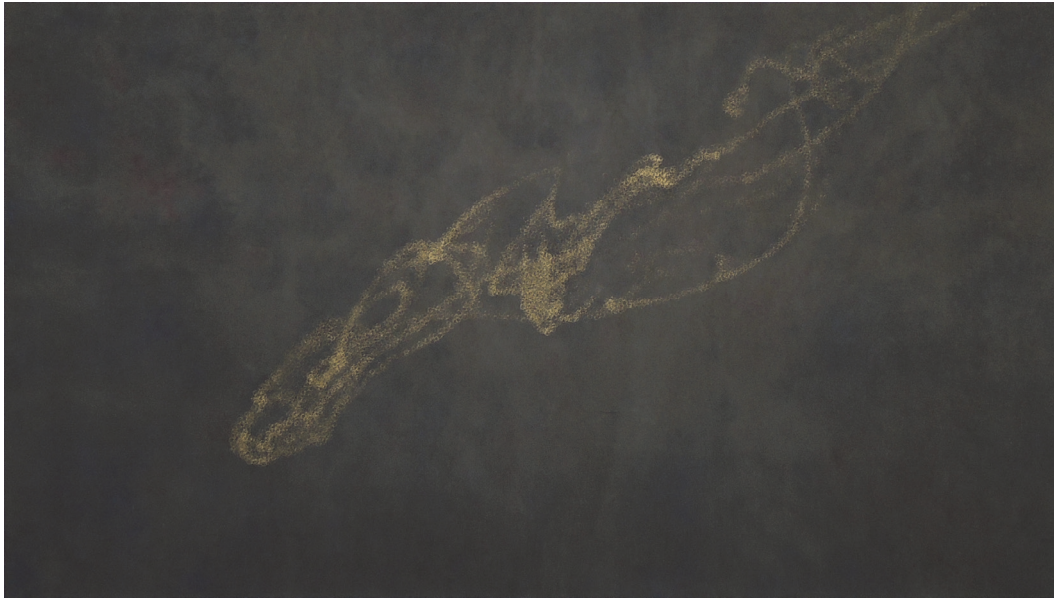
작업실 에어컨의 시원한 공기, 저녁이지만 비를 한껏 머금은 이파리들, 웅성웅성한 작업실의 대화 소리, 차가운 커피.

익숙한 날, 익숙한 풍경 속의 익숙한 자괴감. 금요일 저녁.



【작품 17】 공허한 새벽, 80.3x130.2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집에 있어도, 작업실에 있어도 새벽은 온전히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다. 집에서 보내는 새벽 시간은 항상 혼자이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하던 작업실에 혼자 있게 되는 새벽은 유독 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한참 작업을 하다 유독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고 새소리가 들리면 ‘아, 날이 밝았구나.’ 하면서 하고 있던 일들은 멈추게 된다. 맑은 여름 새벽은 더 공허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마치 모두가 잠든 새벽, 나만 깨어 있는 것 같은 공허하고 허무한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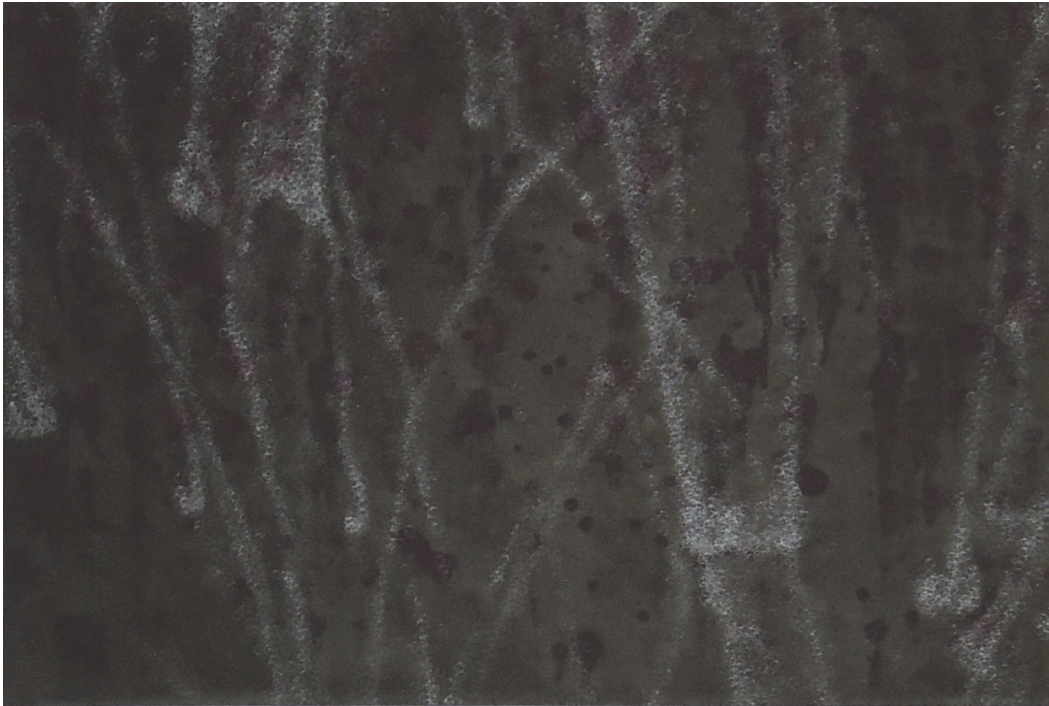
【작품 18】 바쁜 저녁, 90.0x160.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그날의 저녁은 사실 바쁘지 않은 날이었다. 아주 마음이 바쁜 날이었다. 정해진 일들을 차근차근하면 되는데 해가 저물자 시간이라는 총알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하려 마음을 모았다. 급한 마음, 쫓기는 기분을 표현하기 위해 배경에 작은 기분의 요소들을 모두 빼고 그림에 속도감을 표현해보았다.



【작품 19】 폴리던 날, 36.0x96.3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계획했던 일들이 예정대로 착착 폴리던 날. 해야 할 일이 더 잘되는 것보다도 하고자 했던 일들이 생각대로 풀려나갈 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다. 그 박자가 잘 맞으면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마치 시계의 톱니가 맞아떨어지듯 동시에 잘 맞물려 돌아간다. 작업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인간관계도 동시에 속도감을 띠며 지나간다.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하지만 되돌려 생각해보면 마음속 깊숙이 부드러운 꽃잎처럼 기분 좋은 감정들이 몽글몽글 떠다닌다.



【작품 20】 생각이 많은 날, 53.0x72.5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인간관계 등 겹겹이 이것저것 구분 없이 머릿속을 덮쳐온 날. 잡념과 동시에 자꾸 올라오는 과거 행동과 어휘에 대한 후회가 가득했던 날. 항상 말을 하고 후회하느니 말을 하지 않은 다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몇 번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멈추지 못한 말들. 내 말이 남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말이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소심한 마음은 소의 위치로 되뇌고, 되새기고 그래서 또 새로운 후회할 일만 만들던 날. 엉켜버린 거미줄 같던 날. 생각이 많은 날.

Ⅲ. 결 론

본 논문은 기억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함께 시각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기억하는 다양한 것들을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연성의 형태로 풀어내어 점을 통한 회화적 표현연구과정을 확인하였다.

기억에 있어 기억 자체의 형태에 대한 고민과 보이지 않는 기억을 형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기억은 하나의 순간을 완벽한 형태로 기억하는 것이 아닌 기억하는 순간의 많은 상황과 환경이 모여 하나의 기억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미지와는 달리 냄새, 목소리, 분위기 등은 개인에 따라 주관적으로 다르게 느낄 것이다. 기억은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다.

본 연구자의 작업에서는 이러한 이미지를 회화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점을 이용한다. 반복하여 점을 찍거나 그리는 과정에서 본 작업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억을 반복해서 연상함으로써 기억은 더욱 명확하게 자리 잡는다. 작은 점들이 모여 하나의 형태를 만든다. 자주 떠올리는 기억은 잘 잊지 않고, 한번 지나친 기억은 잘 떠올리지 못하듯 점의 중첩이 많은 부분은 강하게, 점의 중첩이 적은 부분은 약하게 표현된다. 점으로 이루어진 형태는 선이나 면과는 달라 언뜻 견고해 보이지는 않지만 기억과 같이 가변적이고, 유연하고, 유동적으로 보인다.

지나치기 쉬운 일상의 기억을 지각하여 순간의 기억을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가볍고, 유동적이고, 가변적이고, 시시각각 변화의 폭이 큰 공기 중에 흩어지는 연기나 물에 떨어진 잉크와 같은 연성의 형태가 기억의 이미지와 맞아떨어진다. 또한 시간이 흘러 기억이 잊혔다 하더라도 기억 자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닌 무의식에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무의식에 존재하는 기억은 완전하게 잊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계기나 상황이 존재하면 다시 연상될 수 있다. 이러한 형상 또한 공기 중에 흩어지는 연기나 물속의 잉크와

같다. 시각적인 형태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연기의 성분은 공기 중에, 잉크의 성분은 물속에 그대로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억 본질의 형태에 대하여 작가 본인의 사고를 정리하고 이론을 정리하였다. 기억은 더욱 다양한 측면이 존재한다. 지나치기 쉬운 일상의 기억과 보이지 않는 기억에 대하여 점을 통해 회화적 표현에 대해 연구하였다. 기억의 이미지에 대한 표현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기억에 본질에 다가서려는 노력을 통한 이미지를 회화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앞으로 기억의 또 다른 방향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해석으로 하여금 폭넓은 작업으로 확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재희, 『물질과 기억 반복과 차이의 운동』, (주)살림출판사, 2008.
- 김환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재)환기재단, 2005.
- 월간미술 역, 『세계미술 용어사전』, (주)월간미술, 2015.
- 아른하임, 루돌프, 『시각적 사고』, 김정오 옮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 Russel, Peter, 『인간의 두뇌-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 마법의 베틀인』, 김유미 역, 교육과학사, 1998.
- F.I.M.Craik, R.S.Lockhart, *Levels of Processing: A Framework for Memory Research*,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전자문헌

- 표준국어대사전, 2018.5.11,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 두산백과, 2018.12.14,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_S_IDX=101013000785388#hedaer>
-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용어사전』, 역사비평사, 2008.3.1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97232&cid=50293&categoryId=50293>>.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Memory Using Dots

- With the Main Focus on the Author's Own Work-

IHN, YE WON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article is a study of my artworks made from 2016 to 2017, particularly, centering on the artworks that were shown at a 2017 graduate thesis exhibition, which express memories of everyday life and of invisible things using dots through painting.

In today's society, where everything passes quickly, people take photographs and keep records to remember events of daily life. Memories can be recalled through photographs or records, but I record memories of everyday life in a manner different from photography or writing; that is, I depict invisible memories such as smells, atmospheres, and feelings by creating images using dots. With time, memories visible to the eye are to be forgotten and distorted. However, memories do not vanish even if they are forgotten.

Memories do not stay in place but change and move. I believe that

such memories take variable, fluid, and malleable shapes. I found identical shapes in smoke or water spreading all over and depicted them in my artworks. Very small and diverse memories gather and form a single big memory. For instance, when I think about when I hung out with my friend, not only can I broadly recall when and where, but I can also divide the memories of my everyday life into many smaller memories, such as what conversation we had, what we ate, how my friend felt, and what kind of mood my friend was in that day.

This article studies the shapes of small memories, not the kinds of memories visible to the naked eye, which I depicted using dots, and also explores the methods of depiction.

Keywords: Memories, dots, invisible things, variable, malleable shapes